가고시마시의 생활정보 알리미

카고 라이프_겨울

제일 좋아하는 가고시마

기사작성 : 레베카　편집 : 소연

개인적인 일이지만 저는 올해 3월을 끝으로 가고시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여러분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인 '사쿠라지마 용암 나기사 산책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라스지마 전망대에서 보는 사쿠라지마

산책로에서 바라본 긴코만

햇볕 쬐는 중

눈이 정말 예뻐요!

친해졌어요

'사쿠라지마 용암 나기사 산책로'는 족욕탕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사쿠라지마 용암 나기사 공원'에서 시작해 '가라스지마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3km 길이의 산책로입니다. 저는 항상 왕복으로 걷곤 하는데 그러면 약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산책로에는 곳곳에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힘들 때면 언제든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산책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자연 속에서 사쿠라지마와 긴코만의 경치를 마음껏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양이가 아주 많다는 것도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페리를 타고 사쿠라지마로 갑니다.

산책로를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고양이와 시간을 보내고, 족욕으로 쌓인 피로를 풀며 위안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역시 가고시마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꼭 한 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쿠라」로 일본어 능력을 갈고닦아 봐요!

기사작성 : 레베카　편집 : 소연

「사쿠라」란?

「사쿠라」는 뭔가요?

「사쿠라」는 가고시마시 국제교류센터에서 일본어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맨투맨으로 생활에 필요한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해에 2번, 8주간 주 1회로 진행되며 회당 수업 시간은 90분입니다.

스케줄 및 참가비

올해 첫 번째 사쿠라는 5월에서 7월에 걸쳐 8주간 진행됩니다. 표에 ①부터 ⑫중, 본인이 희망하는 학습 일시를 골라 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가비는 1,000엔입니다.

더욱 자세한 안내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시간 \ 요일	수	목	금	토	일
10:00~11:30	①	②	③	④	⑤
13:30~15:00	⑥	⑦	⑧	⑨	⑩
18:30~20:00	⑪	⑫	×	×	×

선생님은 어떤 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선생님들은 전원이 자원봉사자로 전문 일본어 교사는 아니지만, 사쿠라에 참가하기 위해 육성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생님 중에는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참가한 봉사자들 모두가 쉬운 일본어를 사용하여 느린 속도로 대화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참가자가 신청 시 제출한 희망 시간에 맞춰 배정됩니다.

「사쿠라」 활용 방법 제안

「사쿠라」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초심자용뿐이며, 그 외 레벨의 참가자들은 직접 본인의 수준에 맞는 커리큘럼을 짜야 합니다. 사쿠라에 참가해 일본어 공부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려 합니다. 단, 사쿠라에서는 일본어 문법과 같은 전문적인 언어 교육은 할 수 없습니다.

-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일본어로 말하고, 바른 일본어로 교정받기
- 미리 공부한 문법을 활용해 일본어 문장을 만들어 말해 보고 확인받기
- 쉬운 일본어로 쓰인 일본어 기사를 선생님과 함께 읽어 보기
- 일본어 레시피를 선생님과 함께 읽으며 요리에 관한 표현 배우기
- 일본어로 만든 스피치 원고나 발표 자료를 선생님께 보여주고 수정 하기

일본어를 사용해서 하고 싶은 일은 생각한 후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정해보세요!

참가자 인터뷰

「사쿠라」에 참가했던 N 씨와 K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N

「사쿠라」는 제 일본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자신감 면에서요. 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의사소통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선생님과 일본어로 대화하면서 '아, 내 일본어가 지금 통하고 있구나'를 느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사쿠라」의 가장 좋은 점은 일대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제 사정에 맞춰준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선생님이 매우 상냥하다는 것도요. 일본어 공부를 하려는 뚜렷한 이유와 목표가 있는 분에게 특히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K

여러분도 「사쿠라」에 참가해 보지 않으실래요?

가고시마시 맨홀 카드 수집 여행

기사작성 : 소연&카이레이

여러분, '맨홀 카드'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맨홀 카드는 시민 여러분에게 수도국의 정보를 알리기 위해 GKP(하수도 홍보 플랫폼)와 각 지자체가 공동 제작한 것으로, 지정한 장소에 방문하면 무상으로 배포하는 컬렉션 카드를 말합니다.

이번에 저희는 가고시마시 프로모션 캐릭터인 마그뇽들과 함께 오직 이곳, 가고시마시에서만 모을 수 있는 3종류의 맨홀 카드를 찾아 소소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영 버스와 시영 전철(트램)을 이용해 수령 장소까지 찾아가는 방법은 물론 주변 관광지에 대한 소개도 있으니 즐겁게 읽어주세요.

맨홀카드

맨홀 카드에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카드의 색상은 카드를 배포하는 지역을 나타냅니다. 가고시마를 포함한 규슈 지역에서 배포하는 카드는 분홍색입니다. 좌측 하단의 숫자는 카드 속 맨홀 뚜껑의 실제 위치 좌표를 나타내고, 우측 하단의 픽토그램은 총 31종류로 그 중 카드의 맨홀 뚜껑에 해당하는 픽토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뒷면에는 디자인의 유래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가고시마시 수도국 본청_가고시마시 가모이케초 1번 10호

시청 출발 → [시청앞] 12번 버스 → [마사고보육원앞] 하차, 도보 2분

처음으로 갈 곳은 출발 지점인 시청에서 가장 먼 '가고시마시 수도국 본청' 입니다! 저희는 시청 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12번 시영 버스를 탔어요. 만약 '덴몬칸'이나 '가고시마 중앙역'에서 출발하시는 분은 16번 시영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면 된답니다. 16번 버스로 이동하실 경우 하차 정류소는 '현청앞' 이고, 정류소에서 수도국까지는 도보 3분 거리예요.

맨홀 카드 수령 장소는 수도국 4층에 있는 하수도건설과(下水道建設課)예요. 그곳에서 설문지(일본어・간단한 영어)를 작성한 후 직원에게 건네면 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설문지 종이 옆쪽에는 맨홀 뚜껑 모양의 캔 배지도 배치되어 있는데, 자유롭게 가져가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수도국 직원분과 인터뷰도 할 수 있게 되어서 맨홀 카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었어요. 현재 가고시마시를 포함한 가고시마 현내에서 배포하는 맨홀 카드는 총 17종류로,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1,000종류 이상의 맨홀 카드가 있다고 해요.

수도국에 열람용으로 일본 전국의 맨홀 카드가 실려있는 책이 구비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외국 관광객 중에서도 맨홀 카드를 수집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인 방문자 수는 무려 '0명'! 이 기사를 읽고 한국분들도 맨홀 카드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맨홀 카드를 모으면서, 카드뿐만 아니라 수도국과 하수도의 역할에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희는 무척 기쁠 거예요!

배부 시간 & 수령 장소	【평일】8:30~17:15	4층、하수도건설과
	【평일】17:16~20:00	경비실
【주말, 공휴일, 12월 29일 ~ 1월 3일】8:30~17:15		

2 관광교류센터_가고시마시 우에노소노초 1번 1호

수도국 출발 → [현청서쪽] 11-2번 버스 → [코켄공원앞]하차, 도보 3분 → 아유란, 도보 이동

다음 장소인 관광교류 센터까지는 [현청서쪽(県庁西)]정류장에서 11-2번 버스를 타고 이동했어요. 같은 정류장에서 11번 버스를 이용해도 된답니다. [현청앞] 정류장에서 이동하실 분들은 16번 버스를 타시고, 같은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돼요. 관광교류 센터는 하차 정류장 반대편 오른쪽 대각선 방향에 있고, 4개 국어로 표기된 간판이 있어 찾기 쉬울 거예요. 휴관일은 없지만 9시부터 18시까지만 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니, 시간에 주의하세요!

카드를 수령한 후 아유란을 타러 아유프라자까지 걸어서 이동했어요. 여러분은 아유란을 타본 적 있으신가요? 맞아요, 아유프라자 건물 위에 있는 직경 약 60m, 최대 높이 91m인 그 대관람차 말이에요. 관람차를 타면 가고시마의 상징인 사쿠라지마가 정면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긴코만을 가로지르는 사쿠라지마 페리, 가고시마의 시가지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바닥도 천장도 의자까지도 투명한 '시스루 곤돌라'에 타봤는데 투명한 곤돌라여서 그런지 경치가 한층 더 잘 보이더라고요. 일루미네이션으로 화려하게 물든 겨울밤에 타시는 것도 정말 추천해요!

영업시간	평일 12：00 ~ 19：45	토・일・공휴일	10：00 ~ 19：45
이용요금	대인 500円	JQ CARD 회원(대인) 400엔	소인(3살 이상 고등학생 이하) 300엔
	곤돌라 1대(4인승) 1,200엔		※1일 승차권을 사용하면 100엔 할인

3 가고시마시관광안내소_센테라스 덴몬칸1층

중앙역 출발 → [가고시마중앙역] 가고시마역 방향 트램 → [덴몬칸] 하차, 도보 2분 → 디저트를 찾아 뚜벅!

아유란에서 가고시마의 경치를 즐기고 난 후에 '가고시마 중앙역' 트램 정차역에서 가고시마역 방향 트램을 타고 마지막 맨홀 카드를 찾아 덴몬칸으로 이동했어요. 마지막 수령 장소는 센테라스 덴몬칸 1층에 있는 '가고시마시 관광 안내소'로 9시부터 19시 사이에 가시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카드를 모두 모았으니 이제 덴몬칸에서 간식을 좀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먼저 가고시마의 명물인 '시로쿠마(빙수)'를 먹으러 '덴몬칸 무쟈키 본점'으로 향했어요. 시로쿠마는 1949년부터 시작해 당시에는 간 얼음에 꿀을 뿌린 심플한 빙수였는데, 후에 토핑으로 체리, 안젤리카, 건포도 등을 올린 것이 동물 중 북극곰의 얼굴과 닮아 지금의 이름인 '시로쿠마(북극곰)'가 되었다고 해요. 부드러운 얼음에 직접 만든 수제 연유와 시럽을 듬뿍 뿌려준답니다!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맛 중에서 원하는 걸 고를 수 있으니 꼭 한 번 드셔보세요! 다음으로는 '카카시요코초(菓々子横丁)'로 이동했어요. 신선한 계란을 듬뿍 사용해 촉촉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감도는 '야키도넛'과 가고시마산 계란으로 만든 커스터드 크림을 부드러운 빵으로 감싼 '카스타동'을 먹었어요. 그 외에도 카루캉(참마로 만든 전통 과자), 도라동(도라야키) 등 다양한 종류의 간식을 팔고 있으니 한 번쯤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가고시마 중앙역에서부터 덴몬칸까지 이어지는 길에 설치된 특별한 맨홀 뚜껑을 찾아보거나 카드의 맨홀 뚜껑 사진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도 맨홀 카드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께도 추천합니다💕

발행 : 가고시마국제교류센터
기사작성 : 소연、카이레이
총괄・편집 : 노소연